

## April 28 종교는 무겁고, 관계는 가볍다

• 마태복음 11:28-30

**종교는 무겁고, 관계는 가볍습니다.**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쉬게 하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 죄를 낱알이 기록하고 조사하는 비밀경찰이나 CCTV 같은 분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각종 ‘종교적 제도’와 의무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. 규칙과 고행, 범조문에 얽매여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십시오.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‘사랑의 관계’로 초대하십니다.

**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.**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과 생명력을 공급받게 됩니다.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 빛이 반사되어 내 삶과 주변 모두에게 비칩니다(마 5:14-16). 어느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.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, 보름달이 되어 주변을 환히 비출 수 있습니다.

**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.**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뺄니다. 어미 소와 아기 소가 함께 멍을 매면 균형이 잘 안 맞겠지요. 누구의 멍에가 더 무거울까요? 어미 소의 멍에입니다. 예수님과 함께 멍을 매면 우리 멍에는 가볍게 됩니다. 예수님이 최선과 최상의 길로 이끄시니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. 인생을 대비하고 개척해야 하는 부담과 근심, 걱정과 염려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. 내가 저야 할 멍에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. 내비게이션도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길은 실수하지 않습니다. 주님은 인도자이실 뿐 아니라 ‘길’ 자체이십니다(요 14:6).

---

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 
멍을 매고 있습니까?

- ① 예수님과 함께입니까, 아니면 나 홀로 멍을 매고 있습니까?
- ② 진리와 생명이신 ‘예수’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?